

친환경차 시장 선점·생산시설 고도화 필요

〈자동차〉

〈석유화학〉

한은 '광주·전남 주력산업 현황·발전방안' 보고서

광주·전남 주력산업인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형 친환경 경량 금속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광주본부 박지섭 과장과 목포본부 이준범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역 주력산업의 기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여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등 대내

글로벌 경기침체 올 전망 압출

철강 신소재 양산 시스템

선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주문

의 불확실성에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등을 지역 자동차산업의 성장세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산업연구원(감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수출 감소), 국제무역연구원(감소), 현대경제연구원(침체) 등도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남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도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교역량 둔화에 미국 에탄분해시설(ECC·

Ethane Cracking Center)의 본격적 가동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들어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ECC는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원료로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한은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광주 제조업의 39.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은 36.9%, 석유제품 25.6%, 철강 16.9%, 선박 5.1%를 차지하는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인 만큼 미래 경쟁력을 높일 중·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같은 점을 들어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타결과 스포티지, 소울 등 SUV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양산, 친환경 SUV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 수출 효과 차종인 쏘울은 23일 가솔린 모델 외에 전기

차 모델도 출시,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부두시설 현대화 등 노후화된 항만시설을 개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기업들이 낡은 생산시설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분야는 자동차·선박 등이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신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1차 금속업체가 밀집된 광양을 미래 지향적 친환경·경량 금속산업 본고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늘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선박 기술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4.61 (+0.33)	↑ 금리(국고채 3년) 1.82 (+0.01)
↓ 코스닥 695.62 (-0.72)	↑ 환율(USD) 1128.10 (+6.20)



농협 전남본부 '해남 겨울배추 소비촉진단' 발족

'겨울배추 소비촉진단'이 꾸러졌다. 겨울배추 과잉생산으로 산지 폐기하는 가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민을 돕기 위한 조치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1일 해남 산이농협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농협 전남본부는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겨울배추 소비촉진 활동을 벌인데 이어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겨울배추 소비촉

진단'을 꾸려 해남산 배추 3000포기를 도내 22개 시·군에 공급했다.

농협은행 주요 점포 22개 창구에서도 겨울배추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산물에 대해 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9500억 투입

지난해 보다 3985억원 늘려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0억원가량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올해 진행할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공고했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전년보다 3985억원 증가한 1조 9500억원을 배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4475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전자·대우위니아 설 명절 이벤트

가전업체가 새해들어 설 명절을 전후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대국민 감사프로젝트 '힘내라! 대한민국! 삼성전자 국민TV 특별전'을 진행한다.

삼성의 새해 첫 프로모션인 국민 TV 특별전은 UHD TV를 파격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55형의 경우 최저 90만원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우위니아도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담채전문점(위니아-대우전자스테이)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담채(신제품 500ℓ 급 이상)와 2019년형 프라우드 냉장고(3도어 대용량)를 구매하면 담채류 바구니(8인용)를 주고 공기정정기, 냉동고, 세탁기(17kg) 할인 프로모션,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넉넉한 대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설 연휴·상여금 '빈익빈 부익부'

기아차 4일 쉬고 상여·귀향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는 상여금 100%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상여금이 커녕, 경영난에 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워 결제를 미루는 기업들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대기업들은 설 선물에 충성한 후가를 주며 생산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최대 7일 휴가에 상여금도=광주·전남지역 대기업들은 설 연휴에 최대 7일 휴가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오는 2월 4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를 갖는다. 설 명절 연휴는 4일이지만 토요일이 겹쳐 있어 최대 6일을 쉰다. 앞뒤로 이를 연차를 내면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을 쉴 수 있다.

기아차 직원들은 상여금으로 통상 임금의 50%와 귀향비 80만원,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 15만, 전통 시장 상품권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 쉰다. 지난해 노사간 특별합의로 상여금을 반납기로 했지만 설 명절은 제외해 이번 설에는 직전 2개월 급여의 50%를 상여금으로 받게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2일부터 6일

까지 나흘간 공장가동을 멈춘다. 기본급의 100%를 설 상여금으로 받는다. 첨단산단 내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사무직의 경우 2일부터 6일간 휴무에 들어가고, 생산직은 교대로 근무를 실시한다. 광주 뿐 아니라 여수지역 기업들도 평균 5일간 공장을 멈춘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수 기업체 설 휴무 및 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 명절 평균 5.2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일부터 ~ 6일까지 5일을 쉬는 업체가 83.7%로 가장 많았고 6일(8.2%), 4일(6.1%) 등이었다.

◇상여금은 커녕, 대금 결제도 미룰 판=모든 노동자들이 넉넉한 상여금에 휴가를 쉰 건 아니다.

여수상의 조사결과, 응답 업체의 15.8%는 이번 설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봉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54.2%)는 업체가 많았지만 경기 불황(27.3%), 자금부족(18.2%) 등의 이유로 여력이 없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한 업체 비율은 응답자의 51.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KJ카드 개인고객 '새해맞이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해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해맞이 이벤트'는 ▲경품 이벤트 ▲가정·교육·건강 연계 이벤트 ▲해외카드 이용이벤트 ▲무이자 할부 혜택 등 총 4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는 개인 신용카드/개인 체크카드로 합산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200만원권·5만원권)와 스타벅스 음료교환권을 제공한다.

가정·교육·건강 연계 이벤트는 개인 신용카드/개인 체크카드를 가정업종(가전, 가구), 교육업종(학원, 서점), 건강업종(헬스클럽, 아미유실, 화장품)에서 합산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5000원권 GS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해외 카드이용 이벤트는 해외겸용 개인

신용/개인 체크카드로 해외이용액 50만원 이상 이용 시 2만원권 롯데마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벤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가전, 가구, 여행(항공사), 병원, 학원, 자동차정비, 손해보험업종에서 3월 31일까지 최대 5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풍성한 혜택으로 고객님의 한 해를 응원하고자 다양한 경품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2019년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님과 함께하는 광주은행 KJ카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확인하면 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